

## 감각

정 범 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 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가난 그 자체였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불과 4~5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세계 지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면적을 바라보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흔히 어느 정도 이상의 큰 수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은 쉽사리 마비된다. 수출이 3천억 불이라는 것과 3백억 불이라는 것은 10배의 차이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큰 수로만 생각하고 10배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손님이 30명인지 3명인지는 큰 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냥 숫자로 바라보는 세계 10위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세계 10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감각에 의해서 사물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실제의 일상은 이미 우리의 일상 경험을 넘어

서는 세계에 들어와 있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제주도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도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단순히 불만 켜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명, 냉난방, 취사, 컴퓨터, TV 등 문화 생활 등에 사용되고 공장 가동, 영화관 운영, 가로등, 비닐하우스 난방 등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기의 양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몸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국제 정치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원자력 부문에서, 원전 공급자는 넘치고 수요자는 부족한 상황에서, 또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문을 닫거나 합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산화를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흑자는 여러 가지 비평을 가하지만, 그것을 모두 씌하여 놓더라도 현재의 원전 국산화가 원전을 운영한 지 불과 20년도 되기 전에, 수백 명의 인원으로 가능했던 일인지 감각적으로 다가오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인들은 아마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너무도 짧은 기간 동안 너무도 익숙해져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일구어낸 것들을 감상할 틈도 없이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 않는다.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인들은 아마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너무도 짧은 기간 동안 너무도 익숙해져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일구어낸 것들을 감상할 틈도 없이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감각적인 혼란도 있다. 도시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를 통해서 인지된다. 공기와 물은 오염되고 있고 환경은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의 숲이 너무도 푸르고 울창해졌음을 발견한다. 회색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땅은 과연 전체의 얼마나 될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 상식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우리는 왜 매일 밥을 지어준 조강지처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스치듯 지나가며 밥 한 끼

를 사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할까? 월급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적은 액수의 자문비를 받는 것엔 감사할까? 한여름 더운 날, 온 가족이 자장면 한 그릇 먹는데 1만원을 지출할지언정 라면을 끓여먹고 나머지 돈을 냉방기에 집어넣을 생각은 왜 못할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국산 A급 안심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식당에서 갈비는 어떻게 사먹을까?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은 사치이고 허름한 지하의 동네 술집에서 양주를 먹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국산 홍삼과 보약을 사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담배를 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의 감각에 의존한 관행은 신뢰할만한 것인가?

우리의 이런 감각적 혼란은, 이용할 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활용거리가 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잡아서 적절히 섞으면 어떤 주장이라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적 논쟁거리는 쉽사리 주조되며 우리의 가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보낸다. 